

금주의 기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심을 깨닫고 믿음의 양 한 마리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a)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3호 2013년 10월 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너진 세상에서 희망의 다리를 놓다!

CT, 온두라스에서 희망을 전파하는 크리스천 활약상 소개

미지역에 위치한 온두라스(Honduras)는 중미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온 국토가 거의 산으로 덮여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에 대해서는 치안 상태가 불안정하다고만 알려질 정도로 그다지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온두라스는 바나나, 설탕, 커피가 주요 수출품이며 목재와 해양자원도 풍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 나라"로 계속해서 여행 기피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경제침체 이후 미국에서 추방된 중미지역의 갱조직들이 온두라스로 몰려나 전국적으로 범죄단체들을 조직,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매수해 부정부패, 암살, 부녀자 납치 그리고 마약중독 등 지구촌에서 점점 더 대표적인 치안불안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와 카리브 지역의 엄격한 마약통제를 피해 중미지역으로 마약 밀수루트를 확대하고 온두라스 두

번째 도시인 산페드로술라를 마약 운반거점 도시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온 나라에 마약밀매와 폭력이 만연된 국가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며 포기하다시피 한 온두라스와 같은 무너진 세상에서 희망의 다리를 건설하는 희망의 전도사들이 있다. 바로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한 크리스천들이 지역 교회와 연계해 온두라스 전체 인구 중 35.5%를 차지하는 14세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온두라스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망 공장들에서 내뿜는 건강한 열기들을 그대로 생중계하고 있다(The Hope Dealers of Honduras: Corruption, assassination, sex trafficking, and drug addiction thwart justice in the murder capital in the world).

온두라스는 스페인의 거대한 신대륙 식민지의 일부였다가 1821년 독립하고 약 25년간 군부통치를 받아오다가 1982년에 자유선거를 통해 민간정부가 들어섰다. 1980년대에 온두라스는 반-산디니스타(니카라과의 민족해방전선) 입장을 취하고 마르크스주의 니카라과 정부와 전쟁을 벌였으며 엘살바도르 정부와 공동전선을 취해 좌익 게릴라들과 싸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온두라스를 중남미 마약 밀매의 환송지점으로 활용하려는 멕시코 마약조직들의 진출로 인해 조직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 진통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온두라스가 미국과 멕시코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범죄조직들의 코카인 이동경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어 니카라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끊이지 않는 세력분쟁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세계 최고의 살인율을 보이는 온두라스에서는 지난 6개월간 3천명이 총격 등의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을 정도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온두라스는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다. 경제성장률이 3%로 그나마 호전됐지만 마약과 인신매매, 갱 폭력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국가다. 또한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UN에 따르면



치안불안정 1위국인 온두라스가 기독교인들의 복음전파로 희망을 갖게 됐다.

2012년에만 해도 인구 10만 명 중 8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온두라스는 무너진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따라서 온두라스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 의사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59%

가 물리적 폭력을 겪었으며 45%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무너진 나라, 온두라스에서도 국가재건을 위한 희망의 다리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긍정적 관계=입금, 부정적 관계=출금

스몰그룹스닷컴, 댄 렌츠의 관계은행계좌 통한 소그룹 관계개선 원리 소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부당한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관계 은행 계좌가 가득 차 있다면 부당한 일을 매우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관계 은행 계좌가 비어있다면 그 일을 거절하든지 하지못해 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는 자신의 관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관계는 자신의 관계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라고 스몰그룹스닷컴(SmallGroups.com) 편집 자문인 댄 렌츠(Dan Lentz)는 설명한다(Making Relational Deposits).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 반응 적극적 섬김, 빠른 갈등해소, 경청

이와 같은 생각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성경에 반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해낸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요청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를 따르며 신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관계적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따뜻한 인사: 사람들을 대할 때, 적절한 스킨십과 눈 맞춤 그리고 격려의 말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정과 반응: 크든 작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마다 지속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가끔 당신이 리더로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잘못을 고쳐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적극적인 섬김: 당신이 시간이나, 물

질,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 당신의 모범이 그 사람을 세우고,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

갈등 해소: 가능한 한 빨리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라. 개인적으로 다가가 오해를 인정하고 밝혀야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

사랑의 언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말해주라.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봉사나 선물일 수도 있고, 스킨십이나 함께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여 그가 최고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경청: 당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잘한다면 당신은 소그룹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은행 계좌에 계속 입금할 수 있게 된다.

2면
 유럽 이슬람 바람 이전 덴마크까지...

3면
 영혼을 변화시켜 제자 삼는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1)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인터뷰
 뉴욕권사선교합창단 12회 정기연주회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한 리더십을 지닌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리더십과 위기관리



김한요 목사 (열반인 베델한국교회)
 리더십과 멘토링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리더십과 영적권위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리더십의 핵심가치

일시 10월 15일(화)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email: aher@apu.edu
- 10월 8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해주세요.





시론

이 가을! 잃어버린 꿈을 꾸리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경상북도 경주 근처 안강이라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공부할 곳...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았 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함"이었고, 비참함을 넘어선 "비극"이었으며, 소...

로마 유명한 희극시인 '테렌스'는 노예 출신, 영국 장군 '크롬웰'은 양조 업자, 미국의 신문발행인 '허워드'는 식료품상 조수, 미국의 정치가, 외교...

"좌절과 절망과 불평"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희망과 용기와 감사"는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 안에 펼쳐 나가실 내일의 꿈이 오늘 보 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 11:1)입니다. 그 꿈이 보이기에...

유럽 이슬람 바람 이전 덴마크까지...

이코노미스트, 덴마크서 전개되는 이슬람 사원과 음식 논쟁 소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지난 2012년부터 덴마크 사회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지만 최근 덴마크에 대형 이슬람 사원이 문을 열게 됨에 따라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 보도했다(Of mosques and meat: Denmark's largest religious minority gets its first proper prayer house).

동 이슬람 사원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외진 지역의 철길 옆에 건설됐다. 비록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이 이슬람 사원은 원형 모형의 돔과 첨탑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결국 덴마크의 무슬림 공동체는 수년 동안 예배처소를 갖게 되기를 갈망해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오다 이 이슬람 사원을 마련하게 됐다.

사실 언론은 처음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슬람 사원의 존재를 세상에



무슬림공동체 대형 이슬람사원 건축 꿈 이뤄 이슬람식 도축 반대로 우파국민당 위상 부각

소개했다. 실제로 이 이슬람 사원은 스칸디나비아의 절제된 건축 양식과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 잘 조화된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급진주의와 외국 이슬람의 영향 그리고 덴마크 무슬림의 폭력 범죄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언론에 소개됐다.

극우 성향의 덴마크 국민당(Danish People's Party)의 엠베센(Carl Christian Ebbsen) 의원은 민주주의와 여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의 상징물을 건축하

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위해 카타르의 왕가가 엄청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덴마크 국민당은 중동으로부터 오는 후원금을 금지할 법안을 마련하려 하기도 했다.

이슬람 사원건축 논쟁과 함께 이슬람 음식인 할랄(halal)에 대한 논쟁도 터져 나왔다. 덴마크에서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된 고기가 병원과 학교 그리고 유치원에 공급되고 있었고, 일부 대형 도

살장에서는 고기가 출하되기 전에 이슬람 성직자들의 정결의식을 거치고 있었다. 대다수의 덴마크 국민들은 고기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덴마크의 반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이슬람식 도축은 덴마크의 기독교 전통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토르닝 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할랄 음식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덴마크의 기독교 문화는 훼손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무슬림과 시위대들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총리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조롱했다.

덴마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슬림들과 극우주의자들은 모두 이번 논쟁에서 자신들이 승자라고 여기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는 드디어 갈망하던 이슬람 사원을 갖게 됐고, 덴마크 국민당은 좌파 집권 이후 침체됐던 그들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2013년 8월 중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덴마크 국민당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올라갔다. 덴마크의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이슬람 사원과 할랄 논쟁을 다음 선거까지 끌고 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보기관(CIA)가 운영하는 사이트(The World

3면에서 계속) 바로 개신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교회들과 선교 단체들 주도로 온두라스가 변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온두라스 인구 중 97%가 로마가톨릭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50% 정도가 개신교인들로 이들이 정치, 문화, 사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두라스 8백4십만 인구 중에서 35.5%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거의 2백만 정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불과 58%만이 5학년에 진급할 정도다. 따라서 문맹률이 나 교육 환경을 개혁시켜야만, 온

두라스의 미래가 보장된다. 1998년부터 퀘벡신학교의 온두라스 선교팀은 '공립학교를 개선시키기 위한 단체'(Association for a More Just Society)를 결성해 지역교회들을 위해 사회개혁을 위해 연대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선교단체들(Jericho Ministries, Micah Project)이 지역교회와 연계해, 아버지 없이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최상의 직업교육과 동시에 재할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가 프로젝트'는 거리에 버려진 남아 아이들을 중심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다. 중미 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미혼모들에 의

한 사생아 출생이 많아 아이들이 거리에서 살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거리는 생존을 위한 환경이다. 그러다가 갱단에 가입되지만 하면, 비록 한시적이지만 무소불위

의 폭력과 여자를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에, 남아 아이들은 거리에서 환각제를 흡입하면서, 갱단의 심부름에 서로 싸워가며 살아간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안내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유능하고 창의력을 갖춘 실력 있는 리더로 가는 첩경"

Midwest Leadership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 입니다

본교소개

-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 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ILA) 회원대학교로서 전세계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음.

-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CL 48 Credit Hours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 관계없음)
2. 각 전문분야 종사자 (영관급 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상, 부장급 경력 5년 이상인자, 목사, 선교사, 장로, 단체인장, 여성전문인, 체육지도자, 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3.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학력제한 없음

*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절차

- 1. 직장파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On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위취득 가능.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취득 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문의 및 상담: 리더십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손동원교수 covenant@unitel.co.kr

Midwest 동문

- 김병도 박사 (장신대학교 설립자, 전, 총장)
구두희 박사 (전, 숙대 용대 학장)
김윤수 박사 (보이스 대표)
김종민 박사 (Midwest 총동맹회장)
김영민 박사 (강원대 교수, 한국총동맹협회장)
김두현 박사 (영성 총회장, 안양 중동교회)
김병일 박사 (기나안 한국총동맹 교장)
김소영 박사 (한예총연합회장, 대전대 교수)
노병진 박사 (전, 대일, 전, 나사렛대 부총장)
박우승 박사 (한울고 교장, 전, 로터리총재)
박준근 박사 (한국유희서비스 대표)
박은진 박사 (대원빌딩 리디자인연구소 소장)
서정숙 박사 (안동대 미대교수, 미술평론가)
서성욱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염영민 박사 (GGU 명예총장, 전, 기교협대표)
오세일 박사 (장신대 교수, 전, 경명대학총장)
유호준 박사 (미국정신과 의사, KWMC 임원)
유복원 박사 (전, 중앙유대 학장, 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윤영기 박사 (예술 총장, 전, 예장(가) 총회장)
이상진 박사 (KWMC 발행위원장)
이상희 박사 (안양 생명회 이사장)
이영희 박사 (명동영원교회, 전, 나사렛대학교 단과대학)
이태원 박사 (전, 영동고등학교 교장)
임종아 박사 (해재대학교 유대 교수)
장광기 박사 (매장백석 중동총회장)
장근로 박사 (전, 과거제장관, 전, 호서대, 명지대총장)
장영준 박사 (전, 고신인문사 사장, 전, 기독교보 사장)
정영민 박사 (New Global Leadership 원장)
김희원 박사 (전, 순복음신학교장)
최병두 박사 (전, 매장총합 총회장)
최성민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사업회 회장)
최일식 박사 (Kinetnet 사무총장, KWMC 사무총장)
안도순 박사 (전, 바울선교회, 보좌관, 전, 신교사)
황영희 박사 (안양 생명회 원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영혼을 변화시켜 제자 삼는다

크리스천북닷컴, 조나단 도슨의 “복음중심의 제자도” 소개

조나단 도슨(Jonathan K. Dodson)은 고든콘웰 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으며, 현재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자리한 오스틴시티라이프교회(Austin City Life Church)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복음 중 중심의 제자도를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씨엠 콜렉티브(GCM Collective), 플랜 트알(PlantR: Reorganizing a Network for Movement), 그리고 가스펠 센터드 디사이플십 닷컴(Gospel Centered Discipleship.com)에서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널 “성경적 상담”과 그 외 다양한 블로그에서 기사를 썼다. 거의 20년간 많은 성도들을 제자 삼는 사역에 몸담아왔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 그 노하우를 “복음중심의 제자도(Gospel Centered Discipleship)”에서 소개하고 있다.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도슨 목사는 이 책에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생명력 있는 제자훈련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의 안내를 따라 복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자도에 대한 이상은 저마다 다르다. 제자도의 오해에 굴복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교회하기’가 아닌 ‘교회하기’에 초점을 맞춰 교회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얼룩진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자도의 정의와 동기, 실천이란 세 범주를 근거로 진정성 있는 제자도에 접근했다. 제자도의 중심에는 기술과 도구가 아닌 바로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

중과 동시에 복음 중심의 제자도와 삶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복음은 회심 이후에 왜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가는가? 또는 복음은 단지 ‘죄인’만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제에 맞춰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감격을 찾아 나신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 성화의 단계에서는 이 복음이 더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

달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만난다.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 ‘무엇으로 이 탈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이들은 교회의 제자 삼는 사역까지도 오해로 불식시킨다. 복음은 제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성숙시키는 데도 말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종교적 규범에 열심을 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영적 방종이라는 자유를 자랑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제자도를 바라보는 이런 저마다의 다른 이상으로 교회는 제자도와

제의 중심에는 복음이 빠진 제자도, 예수가 없는 제자도가 있었다.

먼저, 저자는 제자도의 진정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자 삼는 사역은 몇 번의 설교 몇 번의 강의로 바뀔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저자는 극단을 피하고 동기를 헤아리면서 복음에 근거한 제자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사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흔히 의미가 모호하거나 암시적이다.

이 책은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 영적 변화에 대한 가르침, 단지 변덕스런 행동이 아니라

정의, 동기, 실천 세 범주근거로 진정성 있는 접근 복음 중심의 제자도와 삶 사이 간극 메워주기 알려

는 복음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하나님에 의도하신 제자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도와

다. 그러기에 이들은 더는 구원의 감격도,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적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에 걸맞은 삶과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복음과 동떨어진 채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술한 그들 림을 남겼다. 하지만 문제제기에만 그친다면 이 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 앞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찾아와 마침내 제자도의 근원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한다. 이 문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솔한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행해야 하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믿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따라서 미가 프로젝트에서는 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조건으로 정규 교육과 직업 교육을 하고 있기에, 미가 프로젝트를 위하고 있는 테구시갈라파(Tegucigalpa) 주민들은 이들을 “무너진 세상의 희망 전도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결국 희망 전도사들의 노력은 이제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개혁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온두라스의 한 종합경기장에서는 온 나라에 만연해 있는 마약

밀매와 폭력이 종식되기를 위한 중보기도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로 다른 교파와 교회에서 8000여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했으며, 이 위기를 깊이 절감해온 포르피리오 로보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어린이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행사는 199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중보기도대회의 설립자인 로이 산토스 목사(하베스트 미니스트리)는 7-12세 연령층으로 구성된 어린 중보기도자들이 심각한 자연 재해나 ‘정치적 재앙’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로이 목사는 “정치적 위기가 올 때면 어린이들은 그 문제가 온두라스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강력 한 지도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 하셨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또한 “이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목회자와 교사들은 매주 성경공부를 통해 어린이 중보기도자들을 양육해 이런 주요 연합 기도행사에 참여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결론으로, 온두라스의 미래는 바로 어린이들에게 있다. 대부분의 아

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져 거리에서 값싼 마약에 취해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끔찍한 성폭력의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과 성 학대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너무 쉽게 희망을 접고 갱단에 가입하거나 거리의 여자로 몸을 팔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아니 하나님은 버려진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로 부르며 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 바로 여기에 온두라스의 희망이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들으라!

GKYM 로체스터'13, 12월 25-28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부당한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관계 은행 계좌가 가득 차 있다면 부당한 일을 매우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관계 은행 계좌가 비어있다면 그 일을 거절 하던지 마지못해 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는 자신의 관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관계는 자신의 관계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라고 스몰 그룹스닷컴(SmallGroups.com) 편집 저자인 댄 렌츠(Dan Lentz)는 설명한다(Making Relational Deposits).



GKYM 로체스터'13 홍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한인청년선교축제 GKYM이 오는 12월 로체스터에서 제7회 축제를 개최한다. GKYM은 지난 27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체스터'13에 대해 소개했다.

GKYM은 한인청년들로 시작돼 전세계 차세대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올해 참석인원 5천명을 기대하고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사40:3)를 주제로 삼고 12월 25일(수)부터 3박4일 동안 열린다.

주제 강의를 우리 시대에 남겨진 선교적 과업과 창의적 선교전략, 선교적 삶의 방향제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성경강화로 열방을 향한 선교로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뜨겁게 헌신하는 저녁집회, 선교사들의 생생한 현장 간증, 특별공연, 소그룹 모임, 미전도종족 소개 등의 순서가 있게 된다.

참석자는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으로 회비는 일인당 200달러(10월31일 마감, 이후 추가)이며 자원봉사자, 스텝,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은 150달러.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 자녀(5-12세)들을 위한 GKYM Kids가 제공된다.

팔로업(follow up)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GKYM은 2009년 대회 후 단기선교 521명, 장기선교 53명, 2011년 대회후 651명 단기선교 131명 장기선교, 지난해인 2012년에는 400명의 장단기선교사를 배출했다.

이날 지난 1년반동안 아이티선교센터(이동열 선교사)에서 사역하다 돌아온 이정운 자매(캐나다 큰빛교회 파송)가 참석해 GKYM을 통해 선교의 도전을 받은 과정을 간증했다. 이 자매는 “젊은 날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동열 선교사는 “아이티 사역을 하면서 한인 청년들의 잠재력에 대해 놀랄 정도”라며 “현재 20여명이 동역하고 있는데 모두 준비된 선교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무총장 이동열 선교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김혜택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도완 목사의 기도, 축사 고석희 목사, 로체스터'13 지킴 발표 김은열 목사, Q&A 이동열 선교사, 마무리 및 식사기도 최규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는 김혜택 목사(대표회장, 뉴욕총신교회 담임), 고석희 목사(공동대회장, KWMC 사무총장), 이동열 선교사(사무총장), 김은열 목사(행정팀장), 보스턴 대표로 하버드대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주 목사, 뉴저지에서 사역하는 공동준비위원장 김도완 목사(공동준비위원장), 뉴욕맨해튼에서 인투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공동준비위원장 마크최 목사, 토론토 대표이며 공동준비위원장인 최규영 목사, 그리고 이정운 자매와 스텝진들이 참석했다.

한편 GKYM은 로체스터 대회를 마치고마자 한국에서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8회 GKYM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초교파>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1기 세미나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저 하는모임
- 영적힘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구제 활동
- 4차원 영성 창조회 가입



일 시: 2013년 10월 5일(토) 오전 8시~12시(4시간)
장 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1층 세미나실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권사, 집사
참가비: 30불(식사+교재포함)
선착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40명

[문의]
회장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성경 속의 인물 디베료 황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삶을 대신합니다. 흔히 역사가들은 한참 후에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시시콜콜 따지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간단 한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한 사람의

삶의 편린은 차곡차곡 진실이라는 단어 속에 저장되어 햇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라는 티베리우스(Tiberius BC14-AD37) 황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신 후 4년을 더 살다가 79세로 세상을 떠난 장수한 황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조시대 가장 장수한 왕인 영조가 83세까지 살았는데 그와 비견되는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는 기원전 4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티베리우스는 공화정 말기 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 Augustus AD63-AD14)의 대척점에 있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바쳤던 클리오펀데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안토니우스가 악티움해전에서 패하자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젊었었던 디베료를 데리고 시실리로 피했다가 거기서도 불안하여 그리스까지 도망을 갔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대 사면령이 선포됨으로 3년 만에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베료의 어머니 리비아(livia)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미남으로 일

굴이 희고 눈이 한없이 명정했다고 합니다. 고로 그를 바라보는 여인들은 신비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리비아는 첫째를 출산하고 둘째를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가 뛰어나서 아우구스투스로 하여금 미혹되게 했습니다. 황제는 직권으로 티베리우스의 아버지에게 아내와 이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황제는 임신 중인 아내를 버리고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 전통이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총리를 세 번씩이나 역임한 베를루스코니(Berlusconi)는 총리직에 있으면서 아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들과 음탕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그 후에 이혼을 했지만 70이 넘는 사람이 지금이 고대 로마인 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티베리우스는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에게로 보내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로는 인간성심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제의 후계자로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령관으로 지도력을 보이기도 했던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로 임적이 되어 황제의 후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 율리아와 결혼도 하고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말년에는 거의 나폴리 만에 있는 카프리(Capri) 섬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음으로 티베리우스가 대신 통치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D14년에 타월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자 56세의 원숙한 나이로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2대 황제로 오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니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눈부신 부흥을 이루는 과정을 빠짐없이 보고 받는 기독교사에 특별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본받았는지 재워 26년부터 37년(사망)까지 카프리 섬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 어린 고발정치가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금을 피지 못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강한 로마의 초석을 놓았던 현명한 왕으로 역사하는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 석 자,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는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이름 석 자 밑에 기록될 나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른/초/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날을 만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노래 가사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가, 왜 자꾸 신앙이 위기를 맞을까?"라고 갈등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7:19). 나는 잘 해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패배의식과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자기에 대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현실 사이의 간

18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7:15).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바울은 24절까지는 완전히 밀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침퐁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맞춥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유혹을 하지만, 내 노력을 더 한들 더 깊은 낭패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절감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않으

도 또 다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되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년 동안이나 훈련시키며 다녔습니다. 스승 중의 스승 거인 중의 거인인 예수님과 합숙을 했고, 주옥같은 설교를 날마다 들었고,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으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그 모양입니다. 이 정도인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해보셨습니까? 우리 교적인 의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선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나에게선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절절한 자기 부정, 자기에 대해 완전히 깨질수록 소망

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파위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파위는 훨씬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죄의 능력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며 갈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이 탄식은 일생 가운데 한번은 해야 합니다. 죄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의 밀바닥을 보면서 절대 절망의 자기부정을 한번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절규를 일평생 계속하면 안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바울의 말은 어쩌면 이미 소망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실패와 좌절, 후회와 낙심,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이 죄의 문제와 싸울 것이지만, 이미 승리의 길은 열려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것을 믿고, 이제 낙심과 실의에 빠져 갈등하는 삶을 청산하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더 기대할만 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라는 선포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속에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7:14-25)

격에서 오는 당혹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7).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도 선택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안에 불순함이 있고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교묘하게 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완전하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극복했다할지라

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고, 죽어 마땅합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는 이 탄식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밀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같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진 않지만, 승리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려고 노력할수록 죄에 더 빨려 들어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힘이 개입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부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



후임목사님 청빙

뉴욕실로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에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
- 제출서류 1)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증명서
2) 목사 안수 증
3) 이력서(사진, 가족, 학력, 경력사항)
4) 자기 소개서
5) 목회 계획서
6) 최근 영상 한국어 설교2개 와 영어설교 1개
- 제출 마감 2013년 12월31일
- 제출처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의: 김인규 장로, (347)419-2929, inkyul@gmail.com

본교회에서는 EM중고등부를 담당하실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뉴욕실로암 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1266 법안 폐지 서명방법

AB1266 법안의 문제점과 폐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AB1266법안은 Transgender students, 즉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함께 같은 시간에 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으로...

작성한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반송(Return) 주소와 우표는 다 이미 적혀있다.

2. 유권자 등록을 이번엔 한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지 사인(Signature) 아래 있는 빨간색의 등록유번호를 청원서 이름 왼쪽에 있는 작은 칸에 꼭 기재해야 한다.

만 받을 수 있으며 카피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2. 각 청원서는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명해야 한다. 웹사이트 CA State Associations of Counties로 들어가서 모든 카운티와 도시 이름을 프린트해 놓아야 한다.

만일 LA카운티 거주자가 7칸에 서명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가 8번째 칸에 서명했다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 서명은 두 줄로 그어야 한다.

잘못된 서명을 고치려고 지우개(whiteout) 등을 사용하면 무효화 된다. 혹시 아주 조금 칸을 넘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5. 이름, 주소 칸에는 꼭 정자로 쓰고 절대로 자기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무효가 되지 않는다.

(1)이름 칸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에 있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며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풀네임을 사용해 서명해야한다.

AB1266법안폐지 서명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유권자 등록해야 동일 카운티 거주자끼리 서명 등 지시사항 준수해야 효과 있어

따라서 이 법안을 폐지시키고자 캘리포니아 전역의 미국 목사들, 변호사, 학부모들이 다 일어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인사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효화 되지 않는 서명을 하려면 아래의 모든 규칙들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만 한다. 나한사람이 잘못 쓰면 같은 청원서에 쓴 다른 서명들도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2)주소는 아래 위 두 칸에 쓰도록 되어있다. 위 칸에는 집 번호(예:1234)와 길 이름(예: Brown Ave)을 기재하고 아래 칸에는 도시(city) 이름과 zip 코드(zip code) 만 적으면 된다.

주소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주소는 주로 DMV에 등록된 주소와 같다. P.O. Box는 무효가 되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

6. 마지막으로 사인은 꼭 본인 이 해야 한다. 혹시 노인들이 글을 쓰지 못할 경우, 그분들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 주소는 대필해줄 수 있지만 사인만은 본인 이 꼭 해야 한다.

미국인들도 열심히 뛰고 있어서 지금 이미 30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30-40만은 더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자격의 두 가지 필수

1. 미국시민권자(U.S. Citizen)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유권자(California voter registered)라야 한다.

시민권자지만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했거나 방금 18살이 된 청소년은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명시 꼭 지킬 사항들

1. 2명분의 짧은 청원서는 꼭 컴퓨터에서 프린트해 뒤야 한다. 또 프린트 할 때 scaling option을 none으로 해야 한다.

Long form 청원서는 8명까지 서명할 수 있고, 주문을 통해서

이다. 리버사이드 거주자 서명은 다른 청원서에 따로 받아야 한다.

단 청원서는 꼭 8명 다 채울 필요는 없다.

3. 서명하는 펜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한다.

4. 서명시, 자기 칸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절대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명해야 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2013년 10월 21일 - 12월 13일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Korea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아프리카의 골라(GOLA)



골라족의 대부분은 라이베리아 서부, 주로 로파(Lofa), 그랜드 케이프 마운트(Grand Cape Mount), 보미(Bomi), 몬트세란도(Montserrado) 지역에 살고 있다.

골라족의 언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라이베리아 서부 골라족과 키씨족이 이주해오기 시작한 것은 1300년대부터이며 상아만과 그 너머에 있던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됐다.

있으며, 이웃의 키씨족을 좋아하고, 라이베리아의 다른 종족에 비해 살결이 하얗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모습 골라족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오직 농업에만 의존한다. 쌀이 주요 작물이며 고도로 개발된 농사기술 덕분에 자신들이 소비하는 이상의 생산물을 수확한다.

원형의 오두막이다. 가족간의 유대는 강하며, 가족 모두 함께 일한다. 남자들은 들을 개간해 농토로 경작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벼와 또 암씨족으로 조직되었는데, 혈연집단보다는 지역단위의 조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할례는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식이 된다. 그것은 삶의 '불결한 것'을 정결케 하고 씻어내는 시간이나 땅콩, 타로(taro) 등의 작물과 종이를 돕는다. 소년들의 일 중 하나는 새와 짐승을 논밭에서 쫓아내 작물을 지키는 일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골라족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독교 자료는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100대 급성장-100대 대형교회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예배 참석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교회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앤더슨의 뉴스프링교회로 조사됐다.



성장률 44%를 기록한 뉴스프링교회의 수전 스위프트 홍보실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곳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는 일을 축복해주신 것일 뿐 우리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교회는 1년새 3배(196%)로 성장한 플로리다주 탬파의 시티라이프교회였다. 이곳은 성도 수가 1842명 늘어 모두 278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웃리치 편집진이 교회의 설립연도와 규모, 지역 주민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으로 선정한 교회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트라이엄프 교회였다. 디트로이트 3곳에 예배당을 둔 이 교회는 주일 아침 7시45분부터 7번 예배를 드린다.

예배참석자 숫자가 가장 많은 100대 교회 순위에서는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의 레이크우드교회가 매주 4만3500여 명이 출석, 1위에 선정됐다.

오바마 대통령, 이란에 미 목사 석방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6년만의 이란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란계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영국의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로 15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사예드 아브디니(32·사진) 목사 등 이란에 불법한 미국인 3명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올해 초 국가안보위협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테헤란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브디니 목사는 20세에 기독교로 개종한 뒤 미국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 미국과 이란을 오가며 지하교회를 돕고 고아원을 건립하는 등 많은 사역을 해왔다.

독사 딸 메르켈 독일총리 3선 비결

최근 3선에 성공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그녀는 옛 동독 지역인 우커마르크의 루터교회 목사 딸이다.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지도자가 돼 유럽의 경제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



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

그 원동력은 신앙이다. 메르켈은 지난해 11월 선거운동 도중 한 신학생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80년대 동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면서 물리학자였던 메르켈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때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화운동 단체의 의장이자 동독 개신교회의 지도자였던 인물이 동독 국가안전부의 비밀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희망을 주지만, 기독교적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기독교 정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목표 부상 우려

시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이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박격포 공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공격이 정말 중국대사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반군의 여러 정파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번 공격의 주체일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시리아 사태 발생 이후 러시아와 보조를 맞

춰 유엔 안보리의 대 시리아 제재 결의안 통과를 수차례 무산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치적 해결'을 앞세워 미국의 공습도 막아냈다. 이런 탓에 시리아 반군 사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알 아사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군사정보회사 'IHS 제인스'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1천여개 조직, 10만명에 달하는 반군 가운데 절반이 지하디스트거나 그와 유사한 강경 이슬람주의자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만여명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 소속의 지하디스트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각종 습격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괴한의 습격으로 중국인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실질적인 위협 수준으로 변했다. 위구르 독립운동 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도움을 얻어 파키스탄 등 중국 인접국에 무장세력 양성 기관을 두고 중국에서 관공서 습격 사건, 항공기 납치 기도 등 각종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위구르 전사'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조직에 가담해 이 지역에서 '성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일단 중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으로 부상하고 나면 중국은 앞으로 본토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심각한 테러 위협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풍성한 교회(담임 박호우목사)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381-9490
등록비: \$20 (필수)
회 비: \$1200이상 (성도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입회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3년 10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양경선목사 (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15조)
2) 수석부회장: 자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 (제16조 2항)
2)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원기금(케시어스체크)
* 후보자 본회 발원금: *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일시: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일시: 2013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 (10월 23일 까지)
(1)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장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2) 전화번호 및 이메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진유철 목사 수석부회장: 박호우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office@theckc.org www.theckc.org

청년부사역자청빙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에 위치한 저희 온누리 침례교회는 미 남침례교단 소속으로 27년 동안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담당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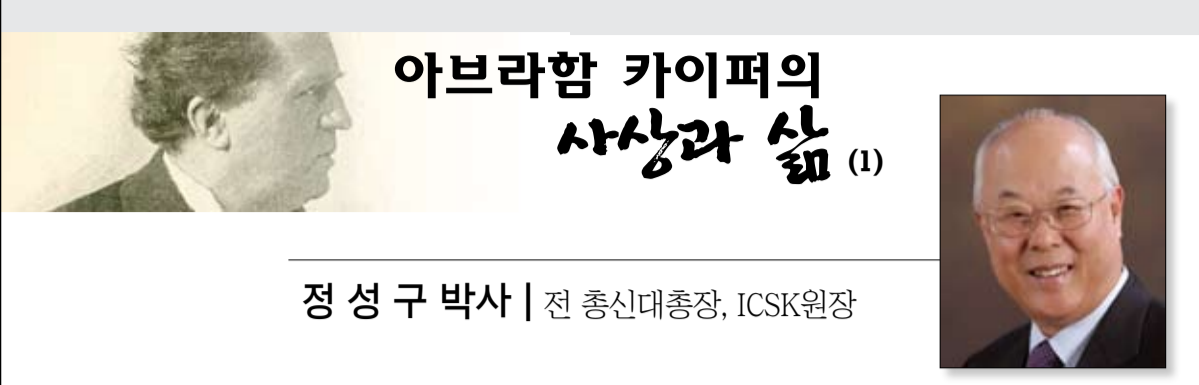
- 1. 지원 자격: 침례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또는 타 교단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침례를 받고 침례교리를 준수할 용의가 있는분)
2년이상 청년 목회 경험 있으신분
2. 제출 서류: 자기 소개서(직계가족을 포함한 자기 소개할 청년부 사역 비전 포함) 이력서(최근 6개월내 촬영한 사진 첨부)
졸업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CD)
추천서 2 통 (최근 담임 목회자 추천 포함)
3. 접수 기한: 2013년 11월 5일
4. 지원 방법: 우편접수

제출처 Attn: 청년부 사역 지원
All Nations Baptist Church
1715 Mormon Trek Blvd
Iowa City, Iowa 52246

문의: 이종구 목사 Email:oksoon@msn.com,
전화:(319)325-1166, 교회: http://www.ianbc.us

아이오와 온누리 침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발송됩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편집자주] 본지는 이번 호부터 정성구 박사가 집필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연재한다. 정성구 박사는 총신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Vrije Universiteit(Drs.Theol.), Geneva College(D. Litt.),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D.),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D.)를 졸업했으며 총신대학 총장 및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 칼빈대학교 석좌교수이며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칼빈주의사상대계" 및 "Korean Church and Reformed Faith" 등 50여권과 현안 정성구 박사 저작 전집 3권이 있다.

1.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재하면서

2009년 3월 23일자 타임(Time)지에서 "칼빈주의는 21세기의 대안"이라고 했다. 칼빈주의는 16세기 요한 칼빈에서 19세기말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발전되고 확장되었다.

우리는 흔히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로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그리고 B.B. 윌펠드를 거명한다. 그 중에서도 카이퍼 박사만큼 역동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일한 사람은 없을 듯하다. 또한 카이퍼 박사는 구 프린스턴신학교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특히 칼빈주의 운동에 기초를 닦았다.

카이퍼(1837-1920)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열개의 머리와 백 개의 팔을 가진 자"라는 감탄을 받았다. 그는 다방면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칼빈주의의 세계화를 위해서

전 생애를 걸었다. 그리고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작은 거인이었다. 그의 신학, 그의 신앙, 그의 리더십, 그의 설교, 그의 연설, 주옥같은 그의 글들을 오늘 독자

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카이퍼 박사는 19세기 화란이 낳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 아마 그가 영아권이나 불어권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의 명성과 사상은 훨씬 더 한국에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조국 화란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강대국인 영국, 독일, 불란서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데다가 제한된 화란어 사용으로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서거했을 때 전세계 120개

신문들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서거를 애도하고 제 2의 칼빈이 잠들었다고 논평했으며, 그가 일생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Pro Rege) 일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개혁자요, 정치가요, 언론인이었음을 확실하게 제시했다.

카이퍼는 1837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라이덴 대학에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으며 25세의 나이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목사가 되어 베이스트 시골교회와 우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의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였다. 카이퍼는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인물이었기에 그와 입장을 달

리 하던 사람들도 앞서 말한 대로 말로나 글로나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불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자유주의를 공격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67cm의 작달막한 키에 지질 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카이퍼는 불을 튀기는 대설교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선 국교에서 교회를 개혁하여 화란개혁교회를 세운 교회개혁가였다. 카이퍼는 불란서 혁명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공격하고, 그의 스승인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re)의 뒤를 이어 A. R. P. 정당의 총재가 되었다. 그는 하원의원과 종신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수상으로서 재직하면서 칼빈주의적 정치를 실현하였다.

카이퍼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학문운동의 국립대학에 대항해서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뿌리야 대학을 설립하고 조직신학교수 및 총장에 취임하였다.

1880년 뿌리야 대학을 개교하면서 그 유명한 영역주권(領域主權, Sovereiniteit in eigen King) 사상을 제창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

이퍼는 1862년부터 그의 서거 때까지 한 평생을 저술가로서 일하면서 223권의 크고 작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중에는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등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카이퍼의 생각은 복음이 인간의 전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능동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것



주리라고 믿는다.

필자의 확인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확신했던 것은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칼빈주의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의 매 장마다 칼빈의 사상과 카이퍼의 사상을 비교하여 논술했다. 카이퍼는 3세기 전의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어쩌면 그렇게 확고히 서 있을까 경탄할 정도였다. 혹자들은 카이퍼가 칼빈을 그리 많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카이퍼는 칼빈의 저서를 오늘날 우리가 논문의 각주를 다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다.

카이퍼의 책들은 대부분 De Heraut나 De Standaard지에 성경 목상, 논설, 연설, 설교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쓴 수많은 글들이고 223권의 크고 작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칼빈의 책들을 무순책 몇 페이지라고 정확히 주(註)를 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최고의 칼빈 학자였을 뿐 아니라,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세분화 하고 적용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걸었다. 더구나 그가 제창한 칼빈주의 사상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칼빈의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대중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가게 했다.

카이퍼는 16세기 칼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참으로 훌륭한 대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카이퍼를 도구로 쓰신 셈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뜨거운 확신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의 나라와 몸 된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일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제2의 칼빈' ...칼빈 사상의 신학화 신앙화로 큰 업적 위대한 신학자, 교회개혁자, 정치가, 언론인으로 활동

광과 주권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1898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가서 그 유명한 '칼빈주의'란 특별강연을 함으로 감채를 받았고 미국장로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간지인 '스텐다드'지를 창간하여 편집인이 되었고 주간지'헤라우트'지를 창간하여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하였다. 카이퍼의 생애는 50여 년간을 기독교 언론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카

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의 구체적인 삶속에서 명백히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우리의 삶 전체를 드러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120년이 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헤아리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삶이 부족한 이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삶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충격을

가정사역 칼럼

인생의 길에 숨겨진 축복의 기회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전3:11)!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일곱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위기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숨겨진 축복의 기회도 됩니다! 한자로 위기(危機)란 말은 위험한 기회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일곱 번

의 기회는 어떤 것인가요?
그 첫 번째 축복의 기회는 결혼과 함께 맺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출산의 선물입니다. 물론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산모의 입덧을 포함하여 태아가 자라면서 여러 힘든 순간들도 있고, 또한 아기 아빠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함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

명이 자라고 있다는 가슴 설레임과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닮은 우리의 2세가 태어난다는 것은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신비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영아기(0-3세)를 통

한 친밀함의 축복과 세 번째, 유아기(4-6세)를 통한 홀로서기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산모 시절로부터 젖먹이 시절 동안 아기와 엄마가 갖게 되는 결속의 기간은 진정한 하나됨의 느낌을 맛보게 해주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생애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며 나아가도록 돕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마나 아빠에게는 때로 아기로 인해 섭섭한 순간도 경험하게 되고 알미운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지만, 역시 이런 독립의 몸짓이 없이는 건 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의 기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7-12세)을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스승이자 교사의 역할의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기회는 청소년기인데, 청년이 되기까지 인생을 배우고 연습하며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할만큼 여러 가지 변화와 탈선의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청소년기의 반항은 마지막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의 기회는 청년기인데,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의 자녀가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아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그가정을 맡기는 시기입니다. 이때 잘 떠나 보내면 그 자녀들은 스스로의 인생

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배우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며 비로소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노년기의 축복으로써 적절한 인생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한 가정의 영적리더로서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할아버지(크신 아버지), 할머니(크신 어머니)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구비 구비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듬뿍 안겨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8. 창조론의 기초(9)-화석이 말하는 역사와 지질계통표

그림에서 보는 표를 지질계통표 혹은 지질주상도(geologic column)라고 한다. 가장 오래된 생물의 화석이 바다에 있고 그 위에 덜 오래된 생물화석들이 놓여 있는 이 표는 지구에서 수억 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간단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들로 진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표의 내용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연대를 측정해서 배열한 것도 아니다. 오직 진화론의 믿음으로 만든 것이다!

화이기 때문이다. 다윈을 비롯해서 모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의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다 변이일 뿐 새로운 유전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한 진짜 진화인 대진화(macroevolution)가 아닌 것이었다. 지질계통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화의 결과들은 연대측정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 가지 화석들이 발견되지

다보면 그 복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정밀하게 디자인되어있다. 또 모든 기관이 함께 작용해야만 생명체가 작동되게 되어있다. 한 기관이 없다면 다른 기관은 쓸데없는 기관이 되어버린다. 대개 각 기관들은 서로에게 의존적이므로 동시에 존재해야만 된다.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주장하듯이 점차로 새로운 기관들이 더해지거나 기존의 기관들이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기관을 가진 생명체(예: 아가미를 가진 어류→허파를 가진 양서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석에서 보는 완전한 디자인은 지적인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또 진화론에서는 삼엽충 화석을 간단한 생명체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생명체는 첨단광학장비를 갖추고 있는 완벽한 생명체였으며 세포의 복잡성으로 말하자면 현대 어느 생물의 세포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다윈이 생각했던,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생명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조상이 있어

기증 나게 많은 새로운 진화형태가 그려져 있지만 실제 화석기록에서는 그 진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다윈은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간모습의 화석을 기대했지만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대과학의 범주 안에서도 진화의 가능성이나 증거를 결코 찾지 못했다. 오히려 매일 여러 종들이 진화의 반대과정인 멸종으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지질계통표의 동물화석들은 희귀한 것들이다

지질계통표에는 많은 동물들이 소개되어있지만 사실 그 화석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된 화석의 95%는 바다 밑에 사는 무척추 조개류들이며, 4.9%는 나무와 바다 식물들이다. 척추동물화석의 거의 대부분도 역시 물속에 사는 물고기이다. 육상 척추동물 화석은 0.1%도 되지 않는다. 노아홍수 동안에 거의 모든 육상동물들은 물에 떠있어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질계통표에는 대부분 잘 발견되지 않는 육상동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지질계통표는 대표성도 없는 진화의 믿

단시간 내 진화로 중간형태 없는 단속평형이론...소진화는 변이일 뿐 모든 종류 화석 발견된 “캄브리아기의 대폭발” 은 아직도 수수께끼



지질계통표
1. 이 표는 순서적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연대를 측정할 결과도 아니다. 진화론의 믿음으로 배열한 것이다.
2. 엄청난 생물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화석 증거가 그 어떤 증거나 가능성도 없다.
3. 이 거짓 역사에 속아서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

야 하는데 화석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 어느 것이 선조이고 어느 것이 후손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진화론적으로 후손인 동물이 선조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상 모든 형태의 생물들이 처음부터 발견된다. 예를 들면 완전한 물고기가 조상 없이 갑자기 캄브리아기층 맨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이전 지층에서는 아무 화석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캄브리아기층에서 갑자기 거의 모든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된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현상을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지질계통표의 진화는 없고 멸종만 사실이다

지질계통표를 보면 멸종된 생물이 너무나도 많다. 진화론은 이 멸종이 진화과정에 필수라고 말하지만 멸종 자체가 진화는 아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종(species)’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을 가진 새로운 ‘종류(kind)’의 생명체가 나타나야 한다. 지질계통표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

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생물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실제 생물들의 모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혹은 갑자기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오래된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살아있는데 그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생물들은 변이의 한계 안에서만 다양해질 뿐이다. 화석들은 각 종류의 생물형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 즉 진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믿음으로 지질계통표를 만들었다.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모순과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거짓역사에 속아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화석과 살아 있는 생물들은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이다. 그 증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성경의 창조와 전지구적인 노아홍수의 격변을 증언하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학교폭력, 배려의 성품으로 풀어내기

지난 3월, 경북 경산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비판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은은 상습폭행, 금품갈취, 집단 성희롱 등의 가혹행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해왔다고 한다.

이 사건이 더 논란의 쟁점이 된 이유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보인 '무감각한 태도'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폭력사실 가운데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무덤덤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돈은 빼앗은 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빼앗겨봐 대신 보관하면서 같이 썼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가해학생 중 한명이 '사죄합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올린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데 니가?', '사나이는 한번쯤 징역 갔다와도 된다'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가열되었다.

성품을 휘두르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가혹행위와 수치심을 안겨주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성품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제 2, 제 3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의 돌봄을 경험시켜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임시제도의 무한경쟁 속으로만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울 수 없는 분노와 상처, 그러니까 분리와 상실, 욕구좌절, 거절감, 성적학대나 가정폭력 등을 겪으며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둔감해지고 자신의 내면이 아픈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조차 이런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벌을 주고 징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사실 이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다.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고정하기 전에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학교폭력으로 내면의 분노를 폭발하기까지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 나름대로 수없이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배려'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비난하고 질책하기 전에 오히려 분노하는 아이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의 욕구에 더욱 공감하면서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결국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인 셈이다.

공감인지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왕따, 우울증, 자살 등의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좋은 성품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면에 분노를 키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숨겨진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방치되지 않도록 고통의 감정들을 어루만져줘야 한다. 그리고 배려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적극적인 성품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널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쓴 집어주시고 함께 올려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임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감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기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훈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www.k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쿰란출판사

동부교계 기사판



선교장학금 신청자 모집

기독교세계한인교회협의회(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 선교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북미주 거주자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 중이거나 준비 중인 신학생으로 신청마감은 10월 31일. 신청서(www.kwmc.com에서 다운),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예세이(2-3장) 등이 필요하다. 장학금액은 일인당 1천 달러.

▲문의: (845)267-4159

담임목사 청빙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만 45-55세로 정규대학, 신학대학(M.Div) 졸업자, 이민 목회 5년 이상, 영어 한국어 능통, 목사안수 3년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사본 필요)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족사진 첨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확인서 및 현재소속교단 확인서, 최근 6개월내 설교CD 2부, 추천서 1통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10월 31일.

▲문의: (718)899-8309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

목회자(사역자)를 위한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가 오는 19일(토) 퀸즈농장 내 아드리안스 하우스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필식 목사(뉴욕영림교회 담임, UTS학장),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 담임), 김경옥 전도사(청교도가정사역원장,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담당)이며 무료.

▲문의: (718)939-8278, (347)822-8460

“가정과 교회가 치유에 오픈해야”

뉴욕나눔의집 중독 세미나, 강사 한영호 목사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한 중독예방 및 치유 세미나가 지난 26일 저녁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박성원 목사 사회로 김봉규 목사의 찬양으로 시작돼 김영호 목사(미동부생명의전화 대표) 기도, 뉴욕나눔의집 소개 후 세미나가 시작됐다.

강사는 LA나눔교회 대표 한영호 목사. 한 목사 자신이 경쟁 생활 하고 마약중독자로 살았던 1.5세 이민자다. 몇 번의 감옥생활과 총기사고로 인한 죽을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난 17년간 노숙인 예방 및 중독자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한목사는 “나눔선교회의 나눔”이란 뜻도 ‘동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약중독자들에게 가족까지 모두 떠나도 하나님만은 안 떠나시고 옆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선교회를 거쳐간 1000명 중 60퍼센트가 치유됐다고 설명했다.

한목사는 “마약은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한인 부모들은 체면을 차리느라 말기가 돼서야 찾아오는데 중독된 지 5년된 사람

은 치료기간이 2배인 10년 걸리므로 초기에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한다. 부모 스스로가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해서 자녀들이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부간 갈등이나 아버지가 술이나 마약, 노름 등 중독된 가정들의 자녀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목사는 “한 사람이 중독되면 온 식구가 힘들어지고 부모들이 결국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여자 중독자들도 증가해 홀리스로 전락된다. 또 마약중독 학생들 중에는 유명 학교의 학생들도 많으며 전화문의 중 3분의1은 동부에서 온다. 크리스천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또 사역자들도 숨기지 말고 각 가정이나 교회가 오픈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게임 중독도 가정문제나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므로 끊임없는 관심과 동행함으로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해야 한다며 중독자녀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치유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화해/화합”, “선거법 개정” 모두 인식

뉴욕교협 제40회기 정부회장 후보 언론토론회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제40회기 정부회장 후보 언론토론회가 지난 1일 새가나교회(담임 이병홍 목사)에서 열렸다. 총무 현영갑 목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앞서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정부회장이 누가 되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선관위는 공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회원교들이 후보를 잘 파악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김종훈 목사의 기도에 이어 시작된 토론회는 먼저 회장후보 김승희 목사가 나섰다.

김승희 목사는 “뉴욕목사회 부회장과 회장, 뉴욕교협 부회장을 거쳐 회장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4회의



뉴욕교협 정부회장 후보 언론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앉은 이는 박태규 목사, 이종명 목사, 이재덕 목사(오른쪽부터 기호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절대적인

화해가 필요하지만 전폭적인 화해는 힘들고 부분적이고 점차적인 화해는 꼭 필요하다. 부회장 3명을 지원하는 회원들을 모두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척해서 32년 목회비결인 인내”를 꼽았다.

부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1번 박태규 목사와 2번 이종명 목사, 3번 이재덕 목사 3명의 출마의 변을 들었다.

박태규 목사는 대규모 전도집회를 꿈꾸며 교회 회복운동을, 이종명 목사는 효율적인 뉴욕교협을 이루기 위해 이단대처 등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화기에애한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점심식사 후 시작된 배구경기

뉴욕목사회 가을 친선 체육대회

뉴욕목사회(회장 최애식 목사) 가을 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29일 열렸다.

알리폰트 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체육대회는 경기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오대환 목사의 기도 후, 한재홍 목사가 “더 좋은 것”(히11:39-4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 김기호 목사의 광고 후 최창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오는 17일 뉴욕교협 총회에서 정부회장 후보로 나선 김승희 목사(회장 후보), 박태규 목사, 이종명 목사, 이재덕 목사(이상 부회장 후보)가 모두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중독예방 및 치유 세미나에서 한영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고난, 기도, 순종으로 하나님 체험

필라교협복음화대회 성료, ‘체험적인 믿음의 삶’ 주제

2013년도 대필라페리아지역(회장 박동배 목사) 복음화대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이종식 목사(뉴욕베이사이드장로교회)를 강사로 열렸다. 또 전기현 장로가 설교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인원 1,200여명이 모인 대회는 ‘체험적인 믿음의 삶’이란 주제로 열렸다. 첫 날은 이대우 목사(증경회장) 사회로 요15:1-2를 인용,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는 제목으로, 둘째 날은 문성록 목사(증경회장) 사회로 빌4:6-7을 인용,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 셋째 날은 박동배 회장 사회로 마11:28-30, 엠5:16-18, 인용, “순종은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축도는 첫날 강승호 목사, 둘째날 이용걸 목사, 셋째 날 김성철 목사가 각각 맡았다. 또 셋째 날에는 뉴욕베이사이드장로교회 150명 성

분위기 조성을, 이재덕 목사는 교협 행정의 경험을 갖고 연례행사들을 잘 치르며 화합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보 각자의 성격 장점과 단점에 대해 박 목사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한다, 단점은 많다고 말하고 이종명 목사는 진리를 위해 순교한다는 정의감과 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덕 목사는 화합에 노력하며 진리에 대해 결단하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화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는 교단과 교단의 정통성과 신학노선 인정(기호1번), 후보들의 교단별 순차적 품도 조성(2번), 뉴욕교협 잘 가고 있다(3번)로 답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증경회장들의 대형교회 교체된 리더십 브릿지 역할, 대형 콘서트(1번), 회원들의 화합과 관심 유도로 자발적 참여(2번), 대형교회 면담 및 교협 필요 인식(3번))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 박태규 목사에게는 교회 통폐합 잡음에 대해, 이종명 목사에게는 2년전 회장입후보 사퇴와 마감당일 등록 이유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박 목사는 아무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종명 목사는 증경회장들의 권유로 입후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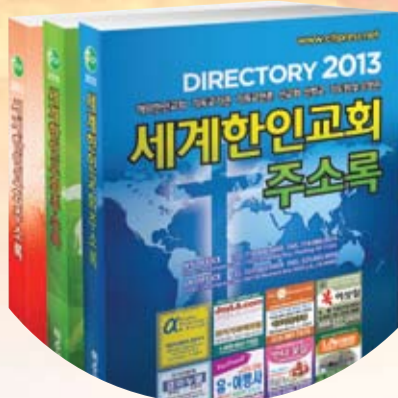
감사 허준준 목사는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교협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는 교단별 후보 세우기를 조연했다.

한편 총무 현영갑 목사는 총회 사전등록을 둘러하지만 당일등록도 가능하며 최근 3년간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2014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마감 임박

리스팅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출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컬러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컬러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 1/4	7.7cm × 11.7cm	
	15.5 × 2.8cm	\$250.00
	7.7cm × 5.8cm	
출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전삽입)	3.7cm × 7.5cm	\$200.00

1)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2) 교회(기관)주소	한글 :	
	영문 :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5) 서책주소		
6) 서책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영문화)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3년 10월 12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미주 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주최 미주이단상담원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진용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철저한 성경지식 있으면 이단에 안 빠져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미주이단상담원 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미주이단상담원 세미나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진용식 목사를 강사로 한 세미나 둘째 날에는 진 목사가 신천지에 대해 다뤘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의 교주인 유재열씨가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부의 사이비종교 정화로 인해 무너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5공 시절 이런 일은 없으며 유재열을 무너뜨린 것은 이만희의 고소 때문이었다. 유재열은 75년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이만희와 그의 신도들에 의해 고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신천지의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만희의 교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면 수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완전한 신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시를 주실 일도 없을뿐더러 계시된 것은 수정될 수도 없다. 이만희의 교리는 오류투성이며 이만희의 책이 나올때 마다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 반면 성경은 마지막 국시절 전두환 정부의 사이비종교 정화로 인해 무너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5공 시절 이런 일은 없으며 유재열을 무너뜨린 것은 이만희의 고소 때문이었다. 유재열은 75년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이만희와 그의 신도들에 의해 고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렌지남성성가단 창단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가칭)오렌지남성성가단 창단 지휘 서문욱 목사, 클래식한 순수교회음악 추구

가칭 오렌지남성성가단(Orange Man's Choir, 이상 OMC 지휘 서문욱 목사) 창단예배가 9월 25일 부에나파에 위치한 제원 식당에서 열렸다.

서문욱 지휘자는 “3년 전부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남성성가단을 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언급하며 “OMC는 교회음악을 상징할 수 있는 성가단으로, 락이나 팝 요소가 가미된 교회음악이 아닌 클래식적인 순수교회음악을 추구하고자 한다. 단원들을 정성껏 지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OM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초대지휘자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창단예배는 김영남 장로의 사회로 시작, 이병일 목사가 기도, 이병선 목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15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학선 목

사가 축도했다.

OMC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음악을 통해 복음전도와 기독교 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회간의 화합과 단원 상호간의 신장 친교를 목적으로 창단됐다. 현재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원모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원 자격은 교파를 초월한 남성(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음악(성가대 혹은 찬양팀)의 경험과 음악적 소질이 있는 자이다.

첫 연습은 오는 10월 7일(월) 오후 7시30분 CTS 기독교 TV방송국 스튜디오(16641 Valley View Ave, Cerritos)에서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김영남 장로(662-650-5944)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진 것은 미국이 망한다는 내용이지만 물론경에 기록된 미국이 망하는 날에 미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는 3가지 절기를 지킨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다. 그러나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다. 이는 이만희가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증거”라 언급하며 “이만희가 쓴 천지창조는 최근에 발견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165가지 오류가 발견됐다. 예를 들면 아담의 9대손인 노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이다.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만희가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계시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천지가 자랑하는 것이 비유풀이이다. 이 비유풀이를 통해 교인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SOW 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은 8월16일부터 9월27일까지 4차례의 공연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소년소녀들에게 거룩한 문화심기

Seeds of Worship 2013년 정기공연 성료

금년으로 3년 째 정기 공연하고 있는 Seeds of Worship 뮤지컬 “THE NEXT POP STAR”가 4회에 걸쳐 성황리에 모두 마쳤다.

내일의 주역인 소년소녀들을 발굴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이 땅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단한 Seeds of Worship(SOW, 단장 박에스터 전도사) 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은 지난 8월 16일 감사한인교회를 시작으로 8월 23일에는 나침반교회, 9월 14일은 부에나파에 위치한 하나교회에서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공연을 했으며, 마지막 네 번째 무대는 지난 27일 가디나에 있는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공연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단어 중심의 비유풀이이기에 여기에 빠져버리면 성경에 대해 무지하게 된다. 비유는 단어가 아닌 내용중심으로 푸는 것”이라 지적했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교리 중 ‘나 자신이 잘 믿으면 내 가족과 조상이 구원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 때문에 목숨 걸고 신천지를 따른다. 그러나 구원은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단 상담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떠한 이단을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상담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들은 이단대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진리를 분별하여 정통교회로 개종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A사랑의교회 예배장소 변경

9월 29일부터 옛 오아시스교회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옛 오아시스교회(5100 Wilshire Blvd, LA, CA)로 예배처소를 옮기고 29일부터 예배를 드렸다.



LA사랑의교회가 구 오아시스교회로 예배처소를 옮기고 9월29일 첫 예배를 드렸다.

LA사랑의교회는 “그동안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미주성산교회 건물을 떠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알려졌다. 갑작스런 장소 이전은 법원의 ‘퇴거명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성산교회와 통합 논의가 오간 뒤 2011년 12월 말부터 현재 예배당을 사용해온 LA사랑의교회는 전 미주성산교회 교인들과 관리권과 임대권 문제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교회광고를 통해 교회이전을 교인들에게 알렸다.

LA사랑의교회는 2006년 12월 남가주사랑의교회(당시 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재정 지원 및 교인 파송으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이다. 담임 김기섭 목사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있던 당시 수석 부목사를 지낸 바 있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는 몇 주 전부터



행사를 마치고 수상자들과 주관처인 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7회 미주크리스찬문협 신인등단 시상식

이민2세 이민기, 영시(Step by Step)로 특별상 수상

미주크리스찬문협(회장 정지훈 목사)은 28일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제 27회 신인등단 시상식을 가졌다.

고광이 크리스찬문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박웅기 목사(부모님선교회 대표)기도와 정해진 목사(명성교회/전 남가주교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정 목사는 ‘일체적인 사랑’(엡 3:18-19) 제목으로 “하나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닫고 이 진리를 문학을 통해 널리 알리는 문인들이 되기를

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제 2부에서는 정지훈 회장이 당선자들에게 당선패를 각각 증정하고, 작가 김문의 씨의 등단작품 심사평과 최선호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주필)의 축사가 있었으며 당선자들이 자기 작품을 낭송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 이민기, 김환주, 이동녕, 이진우
수필: 이민우, 정대근
소설: 오은파, 마가렛이.

(기사제공: 미주크리스찬문협)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건강세미나 성황 대화소통법에 대하여 강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건강서비스(코디네이터 안정영)는 한인 종교지도자 및 그에 관련된 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세미나를 9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화소통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안정영 코디네

터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대화소통법은 한국식 대화법과 미국식 대화법이 있다. 한국식 대화법은 많은 말보다 암암리의 표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며, 감정이 우선순위의 화법, 간접적이며 인정에 호소하는 식

이다. 반면 미국식 대화법은 입으로부터 나온 말에 중점을 두며 말의 핵심과 임부의 우선권, 원칙 중심주의, 이성/논리적인 화법, 눈을 맞추며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통은 보낸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호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확립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라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이밍, 장소, 대화시간의 길이, 기술, 마음

속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확실히 하며 대화주제에 머무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정영 코디네이터의 강의와 함께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짝을 이루어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하며 대화소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LA카운티 정신 건강국 정신건강서비스는 제40회 LA한인축제기간 중 축제장소인 서울국제공원에 부스를 마련 정신건강국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배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BURN + PRINT

공 디스크 저가판매!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 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 736-6500
FAX (213) 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인/터/뷰

뉴욕권사선교합창단 12회 정기연주회 10월 6일 오후 6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주의 기도” 주제로 하나님 찬양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창단 12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6일(주) 오후 6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또 10월 30일일부터 11월 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남가주를 방문,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예배에서 특별찬양 시간을 갖는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2001년 9.11테러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뉴욕을 위해 기도하며 모인 몇몇 권사들에 의해 창단됐으며 동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뉴욕 뿐 아니라 전 미주와 캐나다, 한국에서도 수차례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본지 주최 제26회 세계한인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에서 초청합창단으로 연주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 홍보를 위해 단장 손옥아 권사(퀸즈한인교회)와 양재원 지휘자(아름다운교회)가 지난 26일 뉴욕본사를 찾았다.



본사를 방문한 지휘자 양재원 교수와 단장 손옥아 권사

“주의 기도”(The Lord's Prayer)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번 연주회는 여성3부 칸타타로 구성된 ‘주기도문’(작사 이상윤, 작곡 오진득)이 한인사회에 새로 선을 보이기도 한다.

양재원 지휘자는 “권사합창단은 매년 주제를 정해 정기공연을 해오고 있다”며, “기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신앙모습이지만 특히 요즘의 사회 분위기나 교회들을 보면서 새롭게 기도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말로테의 ‘주기도문’ 4곡, 2부는 ‘소녀의 기도’에 합창을 덧붙였으며, 3부는 칸타타 주기도문 11곡 등 총 19곡을 1시간에 걸쳐 연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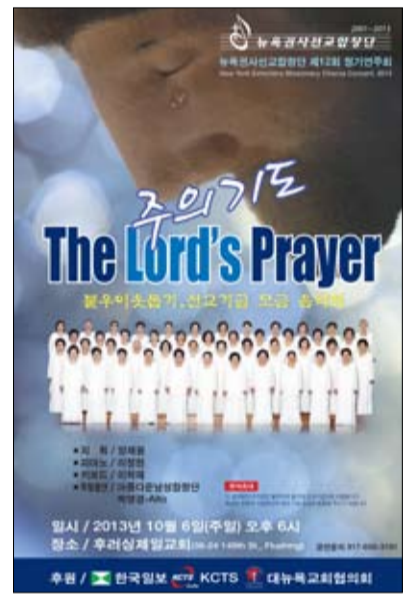
또 매년 찬조팀이 출연하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남성합창단(아름다운교회 소속, 지휘 홍성국)과 메조소프라노 박영경이 출연한다. 박영경 매조는 칸타타 내에 알토 솔로를 겸역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의 특징은 키보드 2대가 등장한다. 양 지휘자는 지금까지의 정기연주회 때는 소규모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했는데 이번 1A 연주 동행 때문에 키보드(이학재)를 사용하게 된다고 소개하며 키보드로 오케스트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며, “그동

안 ‘바울의 회심’, ‘우물가의 여인’ 칸타타를 하면서 뮤지컬 기분이 나도록 했었다”고 말하고 “시대에 맞는 공연의 새 모델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총 50명이 찬양하며 남가주 선교여행에는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원은 △단장 손옥아 권사(퀸즈한인교회) △총무 김경숙 권사 △회계 유효숙 권사 △서기 김용래 권사 △파트장: 1소프라노 김금주 권사, 2소프라노 이월현 권사, 메조 민홍희 권사, 알토 임병숙 권사 △반주 이정현 집사이며 초창기부터 방자각 목사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

(15면에서 계속) 이러한 한인교회의 노력을 덕분에(전체적인 사회의식 성장과 더불어) 흑인들에 대한 편견은 이제 우리 한인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많이 완화되어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실적이 잘 안될지언정 그들을 동등하게 편견 없이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서 올바른 태도임을 더욱 더 잘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한인교회들이 지금까지 보다 더 이 일에 매진해 나갈 보람과 당위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일선사역자들 모두가 위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역의 모습과 몫이 다른 것이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 주된 사역은 우리 스스로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눈

에는 우리 한인도 또한 흑인도 모두 그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요 자녀들임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함을, 우리 한인성도들에게 잘 알도록 교육하고 또한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하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깊숙이 남아있을 지도 모르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의식과 인종적 편견을 모든 인종들을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신 그리스도

의 심장을 담은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미국사회의 전반을 향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종화해의 모범적 예를 제시하여 그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책 소개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길”

저자 송정명 목사

송정명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자신의 이민목회 반백년의 회고와 전망을 담아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길’(출판: 아침향기 240쪽)을 펴냈다.



저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니 그렇게 공간을 얻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단면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이민목회에 관심 있는 동역자와 후배 목사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민목회현장의 뒷안길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민목회현장의 뒷이야기 진솔하게 담다

2부 ‘이민자들과 나누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 제 3부 ‘선교지를 찾아서’로 크게 나눠졌으며 다시 ‘일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목사는 이랬으면’, ‘내 영혼의 스승들’, ‘이민자를 넘어 새 나라 시민으로 사는 법’, ‘작은 천국 가정을 위해’ 등으로 구성, 총 61개의 제목으로 상세하고도 생동감 있는 글들로 장식했다.

본서 추천의 글은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엄태호 목사(전 해군군종장, 전주갈릴리교회 담임), 이준교 선교사(전 세계한인선교사회 회장, 이집트주재),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윌리엄스 발행인) 유백열 장로(미주평안교회 원로), 노형건 선교사(글로벌메시사 상임지휘자) 그리고 송정명 목사 가족이 그동안 교계와 선교, 언론인, 평신도의 눈에 비친 저자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송정명 목사 반백년의 사역을 통한 영향력을 한층 엿볼 수 있게 했다.

송정명 목사는 성결교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했으며 풀러신학교에서 목회신학,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동양선교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13년을 사역한 뒤 미주평안교회 제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24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오다 지난 8월 목회일선에서 은퇴했다.

책에 관한 문의는 (213)381-2202(미주평안교회)로 하면 된다.

▲책 구입처: 미주내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미주기아대책(KAFHI)은 가난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자메이카를 아시나요? 설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플로리다에서 두 시간도 채 되지않는 카리브해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의 나라이고, 레게음악의 창시자 밥 말리의 고향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커피종에 하나라고 일컫는 블루마운틴은 이 나라의 최고봉인 블루마운틴에서 추수된 커피를 말합니다.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선택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인 몬테고베이는 자메이카 서북쪽 해안도시입니다. 여행잡지에서 사진으로 보는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메이카의 깊은 속살을 보지 않으면 자메이카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메이카이지만 다른 한편 세계적인 총기, 강도 사망률 5위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수도 킹스턴은 마약과 갱들의 도시이고, 평일 대낮에도 심심치 않게 총격전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 도심에는 자메이카인들도 들어가지 꺼려하는 흑인 빈민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엔 영국 식민지시대에 설립된 200년된 웨슬리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지붕이나 창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비가오면 예배당 안에 비가 옵니다. 건물만큼이나 나이트 노예의 후손들이 10여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 볼지 않는 위험천만한 이곳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일학교를 오픈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녀를 [무모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메이카 킹스턴 빈민가에 한 선교사가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선 선교사, 그녀는 여자, 아니 과부입니다. 외동 딸 생빛을 데리고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만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 식구가 자메이카 땅과 그 아이들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역 3년만에 과로로 쓰러진 남편 이선구 선교사는 그 길로 조미선 선교사와 어린 딸을 두고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어린 딸 생빛은 성장기에 있지만 영양부족으로 체나이에 또래보다 4-5살은 어리게 보일 만큼 건강하게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서 남편 뒤를 이어 어린 딸과 함께 자메이카에서 계속 어린이 개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이 선교사의 땀까지 더한 사랑을 자메이카 땅과 그 땅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조미선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아이들이 절 이렇게 행복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평일엔 탐비팍 유치원 사역으로, 주말과 주일엔 웨슬리교회 주일학교 사역으로 매일 아이들에게 들려 줌어 살아갑니다. 그녀는 그곳이 행복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비가 오는 판자집 같은 교회와 어린이센터에서 조선교사님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KAFHI는 조미선 선교사(자메이카 유일한 한인선교사)의 자메이카 빈민아동교육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 미주 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사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희성 목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태 김사무엘 김세웅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웅 안인권 이계준 이병만 이예실 이영성
 이현예 임철성 장원일 장재욱 정세훈 조용수 진용태 차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후원위원장 백선준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 에스티 코디네이터 노희준 장로 신구용 장로

국제기아대책기구로 알려진 FHI는 Food for the Hungry 의 한글번역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설립자 래리워드 박사가 성경 시편 146:7, “food to the hungry” 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FHI)의 미국 및 국제적 영문명칭은 Food for the Hungry/FHI 이며 다른 영문 명칭은 국제기아대책과 관련이 없습니다.